

문화광장



노미경 (사)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제주지부장

영화 속 바이러스와 기승전결

한 공금증도 풀고 그 대안점을 알아 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바이러스와 관련한 영화를 소개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자.

1995년에 상영된 '아웃브레이크'는 1967년 아프리카 자이르(Zaire)의 모타바 계곡 용병 캠프에서 의문의 출혈열이 발생되어 군인들이 죽어 가자 미군에 긴급 의료 지원 요청을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미군은 모두 몰살시켜 버린다. 그 후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 자이르에서 다시 출혈열이 발생하게 되고 감염자는 모두 사망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숙주인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를 잡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 되어 전 세계로 확산 되었고 비밀은 은폐 하기 위해 속주를 없애려고 한다.

2011년 '컨테이션'은 에필로그에 감염통로에 대한 정보가 마무리한다. 홍콩에 출장 다녀온 여성의 사망은

단순 일상생활의 접촉을 통해 시작된 다. 한 사람의 전염이 가하급수적으로 퍼지면서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린다. 최초발병자의 경로를 찾으려고 하는 자의 노력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가짜정보와 음모론은 공포감으로 몰아 불안 심리를 더욱 부추겨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버린다.

2013년 '감기'에서는 호흡기로 감염되어 치사율 100%의 유례없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발병하고 이에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해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격리된 사람들은 재난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다. 특히 암시하는 것은 특정 나라와 특정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상대적인 특정 지역에 대한 고립이다. 그러한 고립은 소외감으로 변질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사회비판적인 행위나 감시의 역할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영화에서는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모험으로 권력자들의 탐욕을 이겨내고 결국 정의로운 자의 승리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전반적인 시나리오 기승전결은 이렇다. 바이러스 출현과 전염으로 창궐이 되고 뒷북대책으로 도시는 폐쇄되고 백신은 개발이 되지않아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갈등적인 요소들은 1차적인 원인보다 사회적인 제도와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집권자들의 음모, 그리고 헛소문과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뒤섞여 숨겨진 분노가 한 뭉치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펼쳐진다. 현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사람과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이제 기쁨과 행복 바이러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제주도정이 언제 이렇게 기업 쟁겼나

요즘 제주도정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관련입니다. 아직 정부가 면세점 특허공고를 낸 것도 아닌데 제주도는 교통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진출을 제주도가 마치 밟고 나간 인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특히 신세계 면세점 진출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은데 제주도는 미리 앞서서 적극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 부지에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심의를 개최, '수정 의견'을 했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 신세계면세점은 당초 계획된 주차장 2개소 100면에서 3개소 105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면세점과 인근 도로 확장 공사가 준공된 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 면세점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교통체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신세계면세점이 신라와 롯데면세점보다 규모가 2배나 큰데도 주차장은 이들 업체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도내 시민단체가 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세계면세점이 현재도 교통 체증이 극심한 연북로와 신광로·노연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세점 진출에 따른 교통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면세점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주는 제주가 부리고 돈은 면세점이 쟁긴다'고 하겠습니 다. 앞으로 신세계면세점까지 들어들면 지역상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세계면세점 진출 반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찌 된 일인지 특허공고도 나지 않은 공인 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 면세점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관련

코로나 사태, 안심 이르고 더욱 긴장해야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진환자 '0'상태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이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과 중국 유학생 입도, 행정력 등을 감안하면 더욱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기준 중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집중관찰 대상자 14명에 대한 격리해제로 확진환자 0명, 격리 중 환자 0명으로 신종 코로나 청정지역 상태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2차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파 우려도 있었지만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의 강한 전파력이 계속 우려스런 상황이고, 시가상 학교 개학 및 봄철 날들이 등과 맞물린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더욱 긴장해 방역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국내 신종 코로나의 전파력은 2.2명, 병에 걸린 1명이 평균 두 명 이상에 병을 옮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2005년

메르스에 비해 3배가 넘고 초기 경증 상태로도 강한 전파력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더욱이 도내 각급 학교 개학 일정이 다가온 데다 중국 유학생 내도, 봄철 날들이 시즌도 신종 코로나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변수'가 됩니다.

도내 대학가가 입학식 취소, 다음 달 개강 일정 연기 등의 조치도 이번 사태가 한창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 총 810명 가운데 겨울방학 분국 방문자 중 조만간 돌아올 유학생 526명도 관심 대상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입도시 별도 이동을 위해 버스와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대학별 자가 격리실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우려스런 상황만큼은 분명합니다.

'재난대응에 있어 능동대응보다 과잉대응이 오히려 낫다'는 말처럼 방역당국이 끝까지 고강도 대응, 마무리 대응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효돈119센터 소방실습을 마치며



오동영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에서 보고 들던 장비들을 보고 만져 보니 신기했다. 출동을 빨리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펌블런스 출동을 가게 되었다. 첫 출동이라서 엄청 긴장하고 걱정이 됐지만 신고자의 오퍼로 출동을 한 것이라 별다른 처치 없이 귀소해 굉장히 아쉬웠다.

소방실습을 와보니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 처치, 다양한 환자케이스 등 새롭게 배울 것들이 많았다. 구급출동을 나가 처치 보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인원이 부족해 구급차에 2인만 탑승을 한다고 생각하니 전국의 구급반장님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침착하게 응대하는 모습이나 밥을 먹다가도 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건도 좋지 않은데 맡은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실습을 마치면서 열심히 노력해 반장님들처럼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느꼈다. 4주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효돈119센터 반장님들과 팀장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병원 실습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고 싶었던 소방실습을 가게 됐다. 실습 첫날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대신에 위치한 서귀포 소방서에 갔다. 처음 보는 소방차량들과 소방관분들을 보니 더욱 긴장이 되고 설렜다. 실습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 및 설명을 듣고난 후 효돈119센터로 향했다. '혹시나 실수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에 매우 긴장이 됐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반장·팀장님 덕분에 긴장감이 덜해졌다.

첫날 구급차 내 장비와 센터의 구조와 설명, 감염관리실 설명을 구급반장님께서 해주셨다. 강의시간에 책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의회, '신종 코로나'에 연간 회기 변경

380회 임시회 3월 17일부터

○...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올해 연간 의사 일정 및 3월 임시회 일정도 변경.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0일 열린 회의에서 2월 임시회 취소를 연기된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로 변경하면서 당초 7일간 예정됐던 3월 임시회 일정이 하루 증가.

이와 함께 올해 연간 회기도 당초 11회·123일에서 10회·115일로 변경되면서 총 8일이 축소.

오은지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중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여파로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중단.

서귀포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진행

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난주부터 중단.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는 여부를 대면조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중단된 상태"라며 "중단된 사실조사는 올해 하반기 자체조사와 통합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전통시장 방역 속도 강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속도 강화 등 분주한 움직임.

시는 6개 전통시장의 특별방역에 이어 12개 상인회에 손소독제 120개를 배부해 주요 거점에 비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 예방에 총력. 한 관계자는 "상인들에게도 방역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지원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이용 불안을 해소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부고 장성혁(前 한림농협 조합장), 장성욱(제주공항렌트카 대표) 어머니 여산 송씨 성임(향년 96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0일 09시 58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3층)
▶장 지: 양지공원 → 천왕사
아 들 장 성 혁, 마느리 김 순 자, 성 대 고 용 주, 순 길 고 유 선, 성 원(숙) 임 덕 순, 성 욱 문 순 선, 딸 장 원 지 사 위 김 상 섭, 손 자 장 시 영 손 너 장 수 안, 윤 호, 시 호, 은 석, 진 호
※ 연락처: 장성혁 010-3699-6410, 장성욱 010-2695-7658, 장원지 010-3639-1270, 문순선 010-2699-512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